



## 일본 대형 연금운용회사, 부실운용으로 가입자 피해 발생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 금융청은 퇴직연금 운용회사인 AIJ 투자자문사가 수탁한 연금자산을 부실 운용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동 회사의 영업을 정지시켰으며, 연금운용사의 부실 운용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임.
  - AIJ의 부실운용 피해는 94개 기업(위탁연금 건수는 120건)이 맡긴 약 2,000억 엔 규모의 연금자산 중 1,830억 엔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며, 그 결과 이들 피해 기업에 종사하는 약 88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금의 일부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짐.
  - 금번 부실운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동종 기업 또는 지역 중소기업이 주로 가입한 후생연금기금 가입 기업들로 택시나 트럭업체 등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대부분임.
- 증권위의 검사 결과 AIJ는 2002년부터 조세회피 지역인 케이맨 제도에 사모펀드를 설립하여 기업들이 위탁한 연금자산 전액을 신탁은행을 통해 관리하였으며, 이후 홍콩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함.
  - 금번 피해 기업들 대부분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최대 240%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속아 자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짐.
  - AIJ는 동 기업들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, 실제로는 운용 직후부터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.
- AIJ의 투자손실 배경으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자손실 때문인지 아니면 수탁 자산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인지에 대해 현재 일본 금융청이 이를 조사 중에 있음.
  - 한편, AIJ는 일본 신용평가사 R&I가 실시한 2009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형 자산운용사로 인기가 높은 회사였음.
  - 그럼에도 불구하고 R&I는 2009년에 발행한 뉴스레터에서 AIJ의 수법이 월가의 매도프(Madoff) 사기 사건을 모방한 일본판 매도프 사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음.

(후생노동성, 아시히신문, 마이니치신문, WSJ, 니혼게이지신문 2/28, 2/29 등 종합)